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11년도 표어 ◎

다음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신6:4-9, 마28:18-20)

◎ 행동지침 ◎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 2.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 **수요 강단 - 요나**

## 깊이 잠든 요나

(은 1:4-17)

## Jonah, who fell into a deep sleep

(Jon. 1:4-17)

하나님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옹바로 내려간 요나 앞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때마침 자기 앞에 있는 배를 보면 서 요나는 일이 순조롭게 풀려간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 있을 때, 때마침 나타난 기회를 덥석 잡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는 일이 순조롭게 풀려간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깊은 절망으로 인도하는 시작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과 확신 가운데 해야 합니다.



박노철 목사

There was a ship heading for Tarshish 'just at the time' when Jonah went down to Joppa to run away from the Lord. After finding the ship, he thought that everything would go smoothly.

When our belief is weak, we often grab any opportunity that seems to be timely. And then, we think that everything is going smoothly. But that is often the beginning of a descent into deeper despair. Therefore, we must do our work in light of God's response and assurance whenever we make a decision.

### 1. 요나의 현실

도망가기 위해 배에 올라탄 요나 앞에는 풍랑과 잠시 후 그를 삼킬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배를 뒤덮은 풍랑은 배가 거의 깨질 정도로 큰 규모였습니다. 배 안에는 각처에서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두려움 앞에 각기 자기들의 신을 부르며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을 바다에 던지는 등 살기위해 발버둥쳤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 없이 우왕좌왕 하는 세상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요나는 배 밑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할 요나, 자신 때문에 풍랑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잠만 자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나 교회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으면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선장이 요나에게 기도할 것을 요구합니다(6절). 참으로 놀라운 장면입니다. 어서 깨어 기도하라고 불신자가 성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세상이 먼저 압니다.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깨어 기도하라고, 제대로 좀 살라고 요구합니다.

### 2. 불신자의 기도

배에 있는 사람들은 풍랑의 원인이 하나님의 사람 요나에게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14절). 불신자들이 구원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져 넣습니다. 그러자 즉시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이제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습니다. 요나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요나를 통해서라도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위대한 구원 사역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전도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는 것이 바쁘다고,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전도냐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처럼 감사한 일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만민에게 전도' 라는 사명을 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생의 풍랑과 물고기 뱃속이라는 절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착하고 신실하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 하늘의 별처럼 쓰임 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 1. Jonah's reality

Jonah went aboard the ship to flee from the Lord. In front of him, there was a great wind on the sea, and a bit later, a fish to swallow him. The great storm that came upon the ship was so violent that the ship was threatening to break up. In the ship, the individual sailors were afraid. Each person cried out to his own god. And they threw the cargo into the sea to lighten the ship. They were struggling just to live. This is a picture of the people in this world who struggle in many ways.

However, the man of God, Jonah, had gone down below deck to lie down, and he fell into a deep sleep. In such a dangerous situation, he should have been calling upon God's name and praying. Instead, he fell in a deep sleep, even when the storm was upon them, which was all because of him! In the same way, we need to realize that if the spirit of Christians and churches fall asleep, all of our families, society, and this country will driven into confusion.

At this time, the captain asked Jonah to call upon his God (v. 6). This was really a remarkable scene. Here was an unbeliever telling Jonah that he should wake up and pray to his God! If Christians fall asleep spiritually, the world will notice. When we don't live our lives as Christians, even worldly people may demand of us, "Wake up and pray to God, and live a decent life".

### 2. An unbeliever's prayer

All the sailors in the ship knew that the storm was because of the man of God, Jonah. Therefore, they cried out to God. "The Lord, O Lord, you have done as you have pleased" (v. 14). This was a scene where unbelievers became born again and saved persons. Then, they took Jonah and threw him overboard. Right at that moment, the raging sea became calm.

Now all the sailors in the ship became believers who feared God. They offered a sacrifice to the Lord and made vows to Him. Jonah failed, but the Lord didn't. Just as God saved His chosen people through a disobedient Jonah, He will never stop doing His greatest work.

The Lord clearly commands that we should preach the gospel. However, if we don't obey, because we are busy or we are involved in the world, we will be no different from the appearance of Jonah who fled from the Lord.

### My beloved Christians!

It is a great moment when a soul returns to God. But if we forget this missionary work of 'evangelizing to all people,' we will experience the despair of the belly of the fish and the storm of life that God will bring. By obeying God's command faithfully and earnestly,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you will be God's people, used as a star in the sk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 『일본 지진 난민』 돕기 위한 구제헌금

## - 오늘 주일 I, II, III 부 예배 시간에 -

지난 3월11일(금) 오후2시46분 일본 동북부에 최대 진도 9.0의 강진이 발생하고 15m이상의 해일을 동반한 쓰나미로 평소 세계 최고 수준의 지진 대처 능력을 자랑하던 일본이 최악의 자연 재해 앞에서는 속수무책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원전 방사능 누출 소식과 진

도6.0이상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기에 일본은 절망과 공포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오늘 주일예배 시간에 일본 지진 난민을 돕기 위한 구제헌금을 드린다.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고, 속히 구원의 백성들이 되기를 기도한다.



# 각 층별 컴퓨터 설치

성도들의 사용편의를 위하여 607호에 있던 컴퓨터를 1층, 4층, 5층, 6층, 7층 복도에 설치하는 중이다. 성도들의 접근이 용이한 1층에는 컴퓨터 1대와 프린터를 이미 설치하였고, 컴퓨터 1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중이다.

컴퓨터를 이용할 때에 성도들은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자리를 양보하여 이용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협조하기 바란다.

# 교회는 하나님의 집

우리 교회는 8층 식당(만나 홀)에서만 음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하였었고, 이는 음식물 쓰레기와 부스러기 때문에 발생하는 각종 해충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날씨가 따뜻해지는 3월에는 해충의 번식이 왕성해져 출몰 빈도가 증가한다. 실내 습도가 너무 높지 않도록 조절하고, 교육실에서 음식물 섭취를 금하기 바란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하고 절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지난 주 우리 교회는...



새가족 환영회가 지난 3월19일(토) 801호에서 열렸다.

# 2011년 방글라데시 단기선교 참가신청

## 4월10일까지 사무국에 신청서 제출

올해 단기선교팀(지도 목사 박종민, 단장 이강진 집사)은 선교지역을 방글라데시로 정하고 8월1일부터 8월10일까지 수도 다카를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경비는 1인당 약150만원으로 자비량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는 4월10일까지 사무국에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 방글라데시는 가난하고

서 과중한 조남해 선교사(어린이 사역), 박진영 및 김미성 선교사(의료사역), 현지인인 스브로토 바로이 목사(다카장로교회)가 활발히 선교하고 있는 방글라데시의 단기선교에 서울교회 성도들이 많이 참가하여 서울교회가 세계선교의 중심으로 우뚝 서길 바란다.

인구밀도가 높은 열악한 환경의 나라이며, 국민의 99%가 이슬람과 힌두교도로써 주 예수님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간다.

우리 교회에



2005년 이종윤 원로목사의 방글라데시 선교 여행에서

# 동남아시아 / 말레이시아 선교도그팀

#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금요일 오후 2시, 606호실에 16인의 기도부대가 모여 있다. 동남아시아 김평강, 최사라 선교사, 말레이시아 이종길, 홍미영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동남아시아 / 말레이시아 선교도그팀(팀장 박옥 집사)>이다. 이들은 교회가 매월 전달해주는 선교지의 소식과 기도제목을 펼쳐 놓고 통성기도를 이어간다.



뿌리깊은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에 파송된 이종길, 홍미영 선교사는 폐락 주, 이포시에 정착해 최근 <어머니 학교>를 세웠다. 무슬림 국가에서 열악한 환경에 놓인 여성들을 상담하고 돌보는 곳으로, 이들이 복음으로 치유받고 한 알의 밀알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현지 동역자 쟁이관국강, 뼈라니, 그리고 자녀 하진이와 하겸이가 곁에서 이 일을 돕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전문인 사역을 준비 중인 김평강, 최사라 선교사는 언어습득을 위해 현지 대학에 진학해 학업과 선교사역을 병행하고 있

다. 학교 깊숙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 동역자를 세워 주시기를 간구하던 중, 세 명의 젊은이를 만나 이들과로부터 복음의 씨앗이 퍼져나가기를 기도하고 있다. 고온다습한 기후와 배타적인 환경에 적응하며 강행군을 한 탓에 한때 병을 얻기도 하였지만 지금은 더욱 힘차게 사역을 펼치고 있다.

동남아시아 / 말레이시아 선교도그팀은 지난해 파송 당시 우여곡절 끝에 사역지에 도착하게 된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편지 한 장을 함께 낭독한 적이 있었다. 사람의 힘으로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선교사역의

매순간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잠시도 기도를 멈추면 안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선교사들이 걷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구하며 기도의 릴레이를 멈출 수 없는 이유중의 하나다.

올해부터는 도그팀원들이 선교대학에 속해 우리나라 장로교회의 선교사 파송 상황과 선교 전략 등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익혀나가고 있다. 선교의 의미와 방향에 대해 큰 틀에서 이해를 갖게 되었고, 지금도 배움을 이어가고 있다.

선교대학을 통해 도그팀은 동남아시아와 말레이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귀한 동행이 되어줄 것이란 소망을 품게 되었다.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주시리라 믿고 주신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는 이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한다.

나소정 집사(편집부)



이종윤 원로목사

부활의 복음이 십자가의 적들에게는 무서운 선고장이 된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자 크게 당황했다. 십자가가 곧 예수의 종결이며, 무덤이 곧 자기들의 개선탑이라고 착각하고 도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식 후 첫날 살아나신 예수를 그들은 무엇으로도 부인할 수 없었다. 예나 지금이나 십자가의 원수들에게는 두렵고 떨리기만 하는 소식이다.

부활의 소식은 택함받은 이들에게는 영광스런 초청장이 된다. 모든 사람을 끌어 모으는 힘이 되어 도망친 제자도, 십자가 밑에서 비판과 방관만 했던 배신자들도 다시 주님께로 오게 한다.

부활은 죄의 사멸이요 구원의 확증이며 불의의 패망이고 진리의 승리이며 사망의 사망이고 생명의 개가이기 때문이다. 부활의 복음은 나도 당신도 주님께로 오게 하는 강한 인력(引力)인 것이다.

부활의 메시지는 믿는 성도에게는 엄숙한 임명장이 된다. 부활을 보고 듣고 믿는 이는 이를 전하라 하셨다. 목격자로서 함구할 수 없어 베드로도 다른 사도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갖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산 넘고 물 건너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왔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 부활의 복음이 나를 향한 초청장이 되도록 하자. 그 앞으로 끌려 나가 임명장을 받고 증인으로 땅 끝까지 나아가자. 그렇지 않으면 무서운 선고장이 된다.

“부활의 복음을 흥보로 만드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소서.”

다락방 소개 - 3교구 11다락방

## 기도와 사랑으로 꽃피는 다락방의 기적

### 권소의 집사 (3교구)



환한 미소로 반겨주는 박영실 다락방장님과 다락방 식구들의 따뜻한 사랑 안에서 말씀을 듣고 교제를 나누는 금요일은 행복한 천국입니다. 주님께서 맺어주신 가족이기에 더없이 소중한 식구들의 간절한 기도가 이어지고, 주님의 은혜로 응답받은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할렐루야!'를 외치며 기뻐하는 우리는 진정한 가족입니다.

작년부터 한 가정 한 선교사를 섬기는 자세로 일본 선교사님을 위한 도고팀원이 된 우리 다락방, 이번 일본 대지진의 아픔을 가슴으로 함께하며 하루 속히 안정되기를 간절하게 기도드리는 손길에서 기도의 용사들을 만납니다.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어 모든 성도가 함께 눈물로 기도했던 서양지 집사님의 아들 명수, 결혼한 딸에게서 몇 년 동안 손자를 애타게 기다리던 양육자 권사님, 자신의 신장을 사랑하는 남편 이종욱 집사님에게 이식하며 다급하게 기도드리던 이재경 집사님, 재수를 하는 아들 문범이가 갑작스런 사고로 인한 뇌출혈로 응급실에 입원했던 가슴 철렁한 순간들 곁에는 항상 우리 다락방 식구들의 눈물어린 새벽기도와 따뜻한 위로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기도를 하염없는 사랑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서울교회 모든 성도의 도고와 사랑으로 이종욱 집사님의 건강이 회복된 기적은 우리를 더욱 기도와 사랑의 울타리로 감싸 안는 든든한 식구로 만들어주셨습니다.



나 보다 더 나를 사랑해주고 챙겨주는 다락방 식구들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지난주는 기도로 태어난 양육자 권사님의 손자 민우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순수하고 신비로운 아기의 평온한 웃음을 보며 우리는 이미 천국에 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차려놓은 육의 양식을 나누며 웃음꽃이 입안 가득할 때 진정한 어린 교제의 시간을 흐릿하게 내려다보시는 주님의 그윽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랑과 기적을 선물해주신 은혜로 우리 다락방은 한 해 동안 열두 가정이 한식구가 되었습니다. 아쉽지만 2011년 새해가 되면서 또 다른 예쁜 다락방을 지어 다섯 가정이 분가를 했습니다. 다락방예배는 따로 드리고 있지만 크고 작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올해도 우리 다락방에서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락방식구들이 되기를 언제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철부지 어린아이가  
아빠를 바라보는 심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과  
부드러운 음성  
고대하는 눈길로 바라봅니다.

당신의 그 크신 사랑은  
무엇으로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크게 소리 높여 드립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가신 길을 바라봅니다.  
고통과 멸시를 받으며 가신 길  
넘어지고 쓰러지고  
채찍을 맞으시며  
가신 그 길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되뇌어 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럼에도 자기가 도무지 부인되지 않는  
고난보다는 편안한 것을 좋아하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주님을 따르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  
너무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지라도 반드시 따라야 할  
주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령님의 은혜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천국시민양성 - 교사 연합 기도회

# 사랑과 기도로 승부하는 교사



서양지 집사 (초등부 교사)

교사 교육 및 연합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 아이를 학원에 바래다주고 일찌감치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황 광 목사님의 은혜로운 찬양으로 기도회의 문이 열렸고, 박노철 목사님의 명 강의를 각자의 자리에서 고단한 하루를 보낸 저희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었습니다.

박 목사님이 전해주시신 웃음 바이러스는 교사라는 책임감에 늘 무거웠던 어깨를 조금은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게다가 두 가지 은혜의 보물도 함께 터졌습니다.

첫째로, 사랑이 전부다 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의 동력이므로 말씀과 은혜의 자리를 사랑한 마리아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섬김의 자리에 설 때 마다 마리아와 마르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저에게 확실한 해답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은혜 충만한 마리아가 되어 교사의 소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것입니다.

둘째, "교사는 기도로 승부하라"입니다. 기도 안하면 죽음이다 라는 심정으로 기도를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수험생을 둔 같은 다락방 집사님의 열심에 힘입어 작년 초부터 새벽 제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가장 먼저 저희반 아이들의 이름을 한명 한

명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든든한 반장 허정, IT 꿈나무 원섭, 개구쟁이 해병 유성, 점잖은 꾸러기 원준, 캐나다 다녀온 건하, 단아한 시인 지수, 몸 찬양의 달인 민경, 스마일 현지, 이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며 거룩한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저희 5학년 6반이 3주째 8명 전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키는 아름다운 약속인 주일 성수가 5주, 10주가 되고 올 한해 뿐 아니라 성인이 될 때 까지 지속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초등부는 서명철 목사님의 지도로 모든 교사들이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초등부는 오늘 열리는 친구 초청 잔치와 5월 1일 총동원 주일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초등부 교사로 부름 받은 저희들은 기도의 기적을 믿기에 늘 하나님과 같이 부르짖어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사모한 마리아처럼 말씀의 맨 앞자리로 나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주부대학으로 오세요

박우주 권사 (주부대학 부장)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 133: 1)

봄을 시샘하는 추위 속에서도 언 땅을 뚫고 푸른 새싹을 돋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섭리를 바라보며, 서울교회 주부님들의 신앙도 봄날의 새싹처럼 새롭게 돌아 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성도들이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주부대학은 서울교회 주부님들의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게 하는 교제의 마당, 배움의 교실을 여는 곳입니다. 주부대학에 오셔서 성도의 교제와 말씀의 은혜 그리고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세요.

미술관 방문도 하고, 맛있는 커피 만드는 것도 배웁니다. 혼자 보고, 듣기에는 아까운 프로그램들입니다. 연령제한 없습니다. 매주 화요일 10시 601호실 입니다. 그림 화요일 야참에 붙게요. 잊지 말고 꼭 오세요.

###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4월 2일(토) 한기총 사랑의 쌀운동 조찬기도회에서 설교한다. 총회 표준주석편찬위원회를 소집한다.

■ 주간식당봉사: 루디아전도회(3.27) 뱀피전도회(4.3)

■ 금주의 식사제공: 3교구 임총식 집사 신선주 권사 가정 (장례를 은혜중에 마치고)  
1교구 조남신 성도 임춘자 집사 가정 (장례를 은혜중에 마치고)

##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다락방 리더 훈련과 금요일야기도회의 부흥을 위하여
2. 일본 대지진 복구와 피난민들의 조속한 복귀를 위하여
3. 방글라데시 단기선교팀의 순적한 준비를 위하여
4. 위정자들의 바른 정치를 위하여
5. 탈북 새터민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하여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 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영 어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 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2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 ■ 교회오시는 길

